친환경차 질주…내수 연 10만대 돌파

지난해 11만219대…18.5%↑
10대 중 7대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 급속 성장
수입 친환경차 3만92대 팔려

지난해 국내 자동차업체가 내수시장에서 판매한 친환경자동차가 사상 첫 10만대를 넘어섰다. 현재 친환경차 대세는 하이브리드이지만, 전기차의 성장세가 괄목할만하다.

27일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총 11만219대로 전년(9만3051대)보다 18.5% 증가했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10만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유형별로는 하이브리드자동차(HEV)가 7만5966대로 전년 대비 68.9% 성장하며 가장 많이 팔렸다. 이어 순수전기차(EV) 2만9683대(0.8%↑), 수소전기차(FCEV) 4194대(463.7%↑),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376대(48.5%↓) 순이었다.

점유율로 보면 HEV가 전체 친환경차의 68.9%를 차지했고, EV 26.9%, FCEV 3.8%, PHEV 0.3%로 뒤를 이었다.

친환경차의 대명사로 불리던 HEV는 2017년 점유율이 81.7%에서 2018년 66.8%로 급감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70%대 아래를 기록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및 충전 인프라 확대, 소비자 인식 변화, 상품성 개선 등에 힘입은 FCEV는 판매가 전년보다 463.7%나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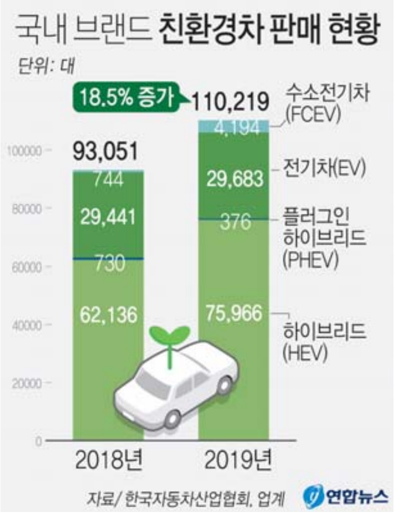
모델별로는 그랜저가 지난해 2만9708대 팔려나가며 '3만대 돌파' 턱밑까지 다다랐다. 단일 차종으로 친환경차 최다 판매 기록이다.

니로 HEV(2만18대), 코나 일렉트릭(1만3587대)이 1만대 이상 판매되며 선전했고, K7 HEV(9307대), 쏘나타 HEV(구형 포함 7649대), 니로 EV(5999대), 볼트 EV(4037대), 아이오닉 HEV(3851대), 코나 HEV(3171대), K5 HEV(구형 포함 2087대) 등이 판매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업체별로는 현대차가 9종, 6만4353대의 친환경차를 판매해 전체 점유율이 절반을 넘는 58.4%를 차지했다. 기아차는 5종, 3만9211대를 팔아 점유율 35.6%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 합산 점유율은 94.0%로, 현대차그룹이 국내 친환경차 시장을 이끌고 있다.

한편, 지난해 수입차 중 친환경차의 내수 판매는 3만92대로 전년보다 1.5% 감소한 것으로 한국수입차협회(KAIDA)는 집계했다. PHEV와 EV 모델은 신차 투입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하반기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국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일본차 HEV 판매가 14.9%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귀성객에 기아차 알리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생산관리자와 파트장, 광주전남지역본부 임직원들은 지난 23일 설 명절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기아차 알리기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광주 양동시장에서 기아차 홍보물과 핫팩, 시장바구니 등 판촉물을 건네며 기아차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특히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쏘울 부스터, 스포티지, 셀토스, 봉고트럭에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겨울철 차량관리법 등 유용한 자동차정보도 전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최근 서울 커넥트투에서 열린 신차발표회에서 남녀 모델이 토요타 정통 스포츠카 'GR 수프라'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토요타 코리아 제공〉

토요타, 올 첫 신차 'GR 수프라' 출시

17년만에 부활 정통 스포츠카
상반기 4종 신차 투입

토요타 코리아가 정통 스포츠카 신차 'GR 수프라'를 출시했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 이후 일본차 브랜드 첫 신차 발표다. 토요타는 GR 수프라와 함께 올 상반기 4종의 신차를 투입해 판매 회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7일 토요타 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잠실 커넥트투에서 신차발표회를 열고 GR 수프라 판매에 들어갔다. GR 수프라는 수프라 단종 17년 만에 부활한 토요타 브랜드 정통 스포츠카다.

GR 수프라는 '운전이 주는 최상의 즐거움'을 콘셉트로 BMW와 기술 제휴를 통해 개발했다. 차명 앞에 붙는 GR은 토요타 모터스포츠 부문인 '가주 레이싱(GAZOO Racing)' 약자다. 최대토크 51kg·m, 최고출력 340마력 3.0ℓ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으로 스포츠 주행에 초점을 맞췄다.

외관은 토요타 클래식 스포츠카 '2000GT' 실루엣을 계승해 전면이 길고 후면이 짧은 롱 노즈 숏 데크 콘셉트를 적용했다. 외부 공기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탑승자 헤드룸을 확보한 더블버블 루프, 고속 주행 시 다운포스를 유도하는 후면 디자인, 볼륨감 있는 휀더 등이 특징이다.

실내는 수평으로 길게 설계한 인스트루먼트 패널을 적용해 넓은 시야를 확보했다. 패들 시프트와 운전에 필요한 버튼은 운전자와 가깝게 배치해 시선 이동을 최소화했다. 몸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하이 백 스포츠 시트와 콘솔 무릎패드 등 운전자가 주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수입차 3대 중 1대 30대가 구매

젊은층 BMW·중장년 벤츠 선호

지난해 수입자동차 3대 중 1대를 30대가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30대 젊은층은 BMW를, 40~70대 중·장년층은 메르세데스-벤츠를 가장 많이 찾았다.

2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의 '2019 브랜드별 연령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국토교통부 신규 등록 기준) 24만4780대 가운데 개인이 구매한 차량은 총 15만3677대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구매량은 30대가 5만645대로 전체의 33.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대가 31.7%(4만8709대), 50대가 19.6%(3만161대)로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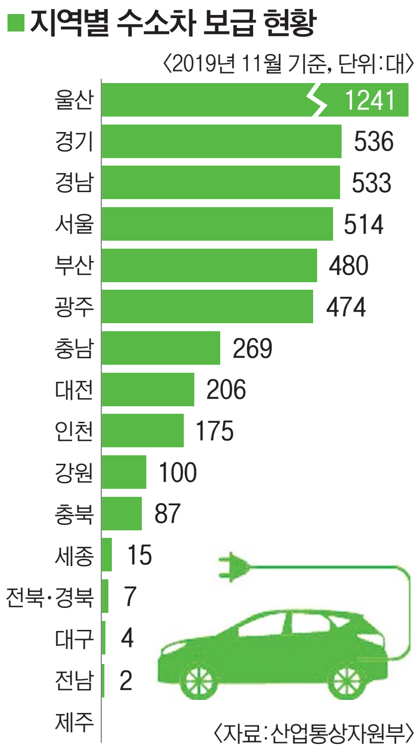
세대별로 브랜드 선호도는 달랐다. 20~30대에서는 BMW가 가장 많이 판매됐고, 40~70대에서는 벤츠가 독보적인 인기를 끌었다.

20대에서는 BMW가 2340대(26.1%) 판매돼 2위 벤츠 2129대(23.7%)를 제치고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30대 역시 BMW가 1만2299대(24.3%)로 가장 많이 팔렸고, 벤츠는 1만2029대(23.8%)가 판매돼 뒤를 바짝 쫓았다.

반면, 40대에서는 벤츠가 1만2257대(25.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BMW는 8407대(17.3%)로 2위였다. 두 브랜드 외에는 도요타(3066대), 혼다(2606대), 렉서스(2487대) 등 일본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졌다.

50대와 60대는 벤츠 선호도가 유난히 강했다. 50대에서는 전체 판매량 3만161대 중 8762대(29.1%)가 벤츠였고, 60대 역시 전체 판매량 1만2345대 중 4248대(34.4%)가 벤츠였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수소산업 중심지' 선포 전남, 수소차 보급 겨우 2대

인프라 구축 소걸음…광주 474대·울산 1241대

울산 1241대, 광주 474대, 전북 7대, 전남 2대…. 정부가 2022년까지 약 6만7000대 보급 예정인 수소자동차의 보급 편차가 지역별로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국가 그린 수소산업 중심지 도약'을 비전으로 내걸고 수소차 수소충전소 보급과 수소시범 도시 조성 등에 나섰지만, 수소차 인프라 구축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수소차 보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에 총 4650대의 수소차가 보급됐다.

이는 2018년 기준 전국의 수소차는 893대에서 지난해 11월 누적 4650대로 520% 증가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누적 1만5000대, 2022년 약 6만7000대의 수소차 보급 목표를 세웠다.

전국에 보급된 수소차 4650대 가운데 26.7%에 달하는 1241대가 울산에 보급됐다. 울산에는 현대차 공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어 경기 536대, 경남 533대, 서울 514대, 부산 480대, 광주 474대, 충남 269대, 대전 206대, 인천 175대, 강원 100대 등의 수소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 87대, 세종 15대, 전북·경북 각 7대, 대구 4대, 전남 2대 등 100대 미만의 수소차가 보급됐다. 제주에는 '0대'로 집계됐다.

또 수소충전소는 서울 3곳, 부산 2곳, 울산 6곳이었다. 경북·전남 수소충전소는 각 1곳이었고, 대구에는 충전소가 없었다.

김규환 의원은 "보급 현황만 보면 정부가 특정 지역만을 위해 노력한다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균형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여러 지역의 수소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